

설계경기에 있어서 외국설계자의 참여

Foreign Architects' Participation in Design Competition

우리 설계사무소는 외국 설계자들의 체인점으로...?

이범재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Beom-Jae

근간 몇년간에 걸쳐 많은 설계경기가 치루어져왔다.

갑자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계경기가 몇년 사이에 급증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설계경기의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의 차후 책임성있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관·공사의 많은 부분이 설계경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인맥과 지연에 의한 설계수주를 지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설계경기의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무명의 건축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소규모의 건축에서부터 설계경기가 이루어져서 소모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대규모의 공공성 건축에 대한 설계경기는 꾸준히 있어 왔었기에 1차는 공개경기로 하고 2차는 입선된 작품들 중에서 제한경기를 하는 방식들이 많이 애용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어두운 밑실에서 서로의 득실을 따져서 알지도 못하게 수의계약을 하여 설계계약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던 과거의 시절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개방성있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공정성이 생긴 것인가를 따진다면, 우리 건축계로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여야 할 발전이라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책사업이나, 국가적 사업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서, 건축계에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들이 많다. 여기서 나타난 몇가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설계경기가 이대로 좋은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 멀지 않은 근래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설계경기가 가끔 행하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공공성을 질게 가진 건축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건축환경에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되는 바이었다. 그래서, 국제공항 설계경기에

서는 외국의 설계자와 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설계자에게도 참가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설계자는 협동의 형식으로, 또는 공동의 형식으로 참여하였고, 그래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외국의 설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우리나라 설계자는 그것을 구입하였다가 그대로 포장을 바꾸어서 제출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에만 나타나다가 현금이 이르러는 점차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설계경기가 나오면 벌써 어떤 사무소는 미국의 어떤 사무소와 몇만불로 계약하였다, 어떤 설계자는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를 접촉한다는 등, 점차 '다국적'화하는 추세이다.

건축에서의 국제화라는 것은 쌍방교환의 태도와 쌍방향성의 국제화이지, 일방적 수용의 국제화는 아닌 것이다. 우리의 확고한 능력과 태도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설계경기에 참여하려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설계경기에 어떠한 외국설계자가 참여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얻어서, 참가여부에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외국의 설계자와 조인트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대규모 사무소들이 외국의 설계자와 협동한다고 한다면, 그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들은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러한 데에도 굴하지 않고 자체적인 경험과 본인의 건축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금전적, 환경적인 불리함을 참으면서도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은 경의를 표할만 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외국설계자와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설계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본인들의 이름으로 하여 설계경기에 제출하는 데에 대한 윤리적인 시각인 것 같다.

건축을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던말던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나름이지만, 소위 몇몇 대규모 사무실의 시각은 외국설계자를 이용하더라도 수주를 하여 사무실의 외형적

명성을 높이거나, 경영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미국사람에게, 어떤 프로젝트는 프랑스사람에게 하는식으로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하는 것이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하고 가공하여 국제적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 이를 국제시장에 내놓아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재벌들이,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이 이익을 가지고 부(富)를 취하여 오는 것과 같은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생산회사가 외국산 자동차를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다면, 자기의 살을 자기가 갉아먹는 것이 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투자를 하여 외국에서 공부해 온 건축가들이 많다고 본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점차 외국의 설계와 외국건축가를 접할 기회도 다양해졌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유용한 인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의 건축과 건축가들에게서 전수한 것들을 우리 건축계를 위해 십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단순히 외국인 설계자와의 접촉매개체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위한 소모적 매개체로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외국설계자에게서 얻어야 되는 것은 상품으로 하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외국의 기술과 그들이 발전시켜온 하드웨어의 것은 우리가 십분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면, 아이디어나 생각, 건축에 대한 과정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명간 우리의 설계 사무소들은 외국설계자들의 체인점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이것이 우리 설계사무소들의 앞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형성될 것인가?